



## 이승욱 외 '대한민국 부모' &lt;문학동네&gt;



끔찍한 사건일수록 오래 남는다. 고3 남학생이 성적 때문에 자신을 때리고 괴롭히는 엄마를 죽이고 수개월간 집에서 함께 지냈다는 뉴스를 잊을 수 없다.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가.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질병도 사고도 아닌 자살이다.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인 나라, 원인은 일시경쟁에 있다.

책을 읽는 내내 가슴이 먹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이라는 부제를 붙인 이 책은, 교육 상담치료 전문가 셋이서 썼다. 성적이라는 철창에 갇힌 가엾은 아이들이 '죽거나 죽이거나 미치거나', '병든 것이 정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담았다. 속빈 교육 때문에 망가진 부모와 아이들의 실태보고서인데 실제 심리 상담 사례를 나열한 형식이고 보니, 가식도 여과도 없다.

'나처럼 가난하게 살지 마라'던

## 이 땅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

성적 경쟁이 있는 한, 대한민국 학부모는 행복할 수 없다. 부모는 자식에게 귀감이 아닌 반감의 대상이 된 채 '명문대 합격'만을 요구한다. 자식들도 마찬가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부모 뜻대로 '대학'과 '성공'을 위해 죽기보다 싫은 공부를 '해드려야 할' 뿐이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엄마는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고 일기수 일투족을 간섭하며 통제한다. 사교육에 관한 정보력으로 무장하고 자녀를 총지휘하지만 절차 자신의 삶은 없다. 모든 걸 바쳐 희생하는데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자꾸만 엉나가는 자식이 아속 할 때마다. 피차 불행할 수밖에 없는 공멸 구조에 매몰되는 것이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승자독식



정강철

198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부모 세대의 교훈이 다음 세대로 세습되었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부려움을 한 몸에 받고 싶은 기이하고 병적인 풍토에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녀만 따로 떨어져 자발성을 갖게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남들이 가는 대학, 남들이 타는 차, 남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살게끔 자식을 키워야 마땅한 사람에 대한민국 부모니까.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사례 아닌가, 반문하다가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싶어 숨이 막힌다. '나는 누구이며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고 있나?' '엄친아'라는 말을 만들어 낸 사회, 학벌과 스펙을 조장하는 매스컴이 공통처럼 활개 치는 나라에서, 적자생존의 정글로 자녀를 내던져야 하는 대한민국 부모.

부모의 마음이 편해지면 자녀 사랑이 쉬워진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데, 쉽지 않다. 생각할 수록 아프다.

## 빛고을성탄문화축제

## 사랑의 연탄 모금

- 12월 2일(월) ~ 30일(월) 매일(월~토) 12시 ~ 6시까지
- 협약식\_ 25일(월) 오전 10시 30분 (광주교단협의회, 광주시청,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랑의 연탄모금 교회 설명회\_ 26일 오후 6시 광주한빛성결교회 (문희성 목사 ☎ 676-8831)
- 사랑의 연탄모금 출정식\_ 12월 2일(월) 5개구 지정장소에서 시작)
- 동구(충장로) 서구(롯데마트 월드컵점) 남구(유스퀘어) 북구(북구청) 광산구(흑석사거리 홈플러스)

## 성탄축하음악예배

- 12월 8일(주일) 오후 4시 서현교회(박은식 목사)
- 광주CBS소년소녀합창단, 서현교회 찬양대, 월광교회 중창단, M하프단

## 성탄트리점화식

- 12월 8일(주일) 오후 6시 (구/도청 분수대)
- 광주시민, 광주광역시장 및 각급 기관장

주최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무등산 자락 의재로에 '해와문화예술공간' 개관

인문학강좌·심리극·시네 토크 등 '병원 밖 예술 통한 정신 치료'

교육·전시·레지던시 운영... 8일부터 中 송영홍 작가 초대 개관전

## 예술로 힐링합니다... 쉼을 선물합니다

'제2의 광주 예술의 거리'로 불리는 무등산 자락 의재로에 문화예술로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쉼을 선물하는 문화공간이 문을 열었다.

의재 허백련 선생의 흐름을 딴 의재로 109번 길에 자리한 해와문화예술공간(대표 오진철·이하 해와).

문화예술과 인문학을 즐기고, 또 문화예술로 심리를 치료하는 복합문화공간인 해와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사이코드라마 활동을 해온 오진철 대표와 광주양지병원 대표원장이자 병원형 대안학교인 팜풀리성장학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석재 원장이 '병원 밖에서 예술을 통한 정신 치료'를 목표로 만들었다.

오는 8일 정식 개관하는 해와는 전남대 후문에 뿐만 씨앗이 토대가 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전남대 후문에 카페와 소극장, 상담센터를 갖춘 문화공간을 열고, 인문학강좌, 공연, 심리극, 심리학강의, 시네 토크 등을 통해 지역민들과 함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무등산 자락에 새로운 공간을 오픈했다. 소극장을 갖추고 있는 전남대 후문 공간과 그대로 유지돼, 두 공간을 오가며 다양한 문화·심리·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해와라는 이름은 '해쳐럼, 해와 함께 헛별을 비추겠다'라는 의미다.

해와는 지상 3층 건물에 갤러리와 카페, 상

담치료 센터, 게스트하우스 등을 갖추고 있다. 크게 아트센터와 공감센터, 교육센터로 나눠진다.

아트센터는 작가들에 대한 창작지원과 함께 교육, 전시, 레지던시 기능을 하게 된다. 갤러리에서는 개관기념으로 중국 작가 송영홍씨를 초대해 오는 8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열리는 '미문(未聞)'을 시작으로 해마다 12차례의 전시회가 열린다. 특히 광주시립미술관의 도움을 받아 중국과 일본 작가를 비롯해 한국의 역량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게 된다.

2층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작가의 방'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인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이색적이다. 해와는 방문객들이 작가의 작업 공간을 보면서 치유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센터는 사이코 드라마, 심리상담, 워크숍, 강좌 등을 통해 이동, 청소년을 비롯한 현대인들의 마음 건강을 책임지는 치유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팜풀리성장학교, 광주 양지병원 등과 연계해 학교 밖 아동·청소년,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치료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1박2일을 보내며 심리 상담과 역할극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 무등산을 산책하는 '내 마음의 워크숍'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게스트하



갤러리와 카페, 심리 치료 공간, 게스트하우스를 갖추고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 '해와'는 문화예술을 시민들에게 치유를 선물할 예정이다.

우스는 앞으로 여행자들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현재는 경찰과 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심리 프로그램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교육센터는 심리학과 인문학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현재는 박구용 전남대 철학 교수와 인문학교실을 진행중이며, 앞으로 단계별, 수준별 커리큘럼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인문학교실, 청소년인문학교실, 클레멘트코스, 스트리



윤진선 작 '2013 그곳으로부터'

입상작들은 13~17일 같은 장소에서 추천·초대작과 함께 전시된다. 문의 062-222-3757.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CBS  
1961-2013  
50주년

## 최우수상 봉아답씨 'Memory2'

13일 비엔날레관서 시상식·작품전

말했다.

2차 심사위원장 김진관 성신여대 교수는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작품들이 많이 출품됐다"며 "선정 작품들은 신선한 기법과 자유로운 상상력들이 가미된 작품들이었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오는 13일 오후 2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다. 대상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개인 초대 부스전 개최가 지원되고, 최우수상과 우수상에게는 각각 500만 원과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 한국화대전 대상에 윤진선씨

제25회 대한민국 한국화대전에서 '2013 그곳으로부터'를 출품한 윤진선(여·33·경남)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광주시와 광주미술협회는 지난 2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제25회 대한민국 한국화대전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특별상 4명 등을 비롯해 모두 152점을 입상작품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Memory2'를 출품한 봉아답(여·22·광주)씨, 우수상에는 '기(氣)'를 출품한 이은혜(여·23·광주)씨와 '가을서정'을 낸

심강식(53·광주)씨가 각각 선정됐다.

특별상은 강계은(여·23·대전), 장우길(19·광주), 방경남(52·전남), 정세원(57·대구)씨가 각각 받았다.

광주미술은 "국내 유일 한국화대전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심사를 1, 2차로 나눠 진행했다"고 밝혔다.

1차 심사위원장을 맡은 양계남 조선대 미술대학 명예교수는 "올해 한국화대전은 작품의 내용이 충실히하고 진지한 작품이 많았다"며 "향상된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다"고